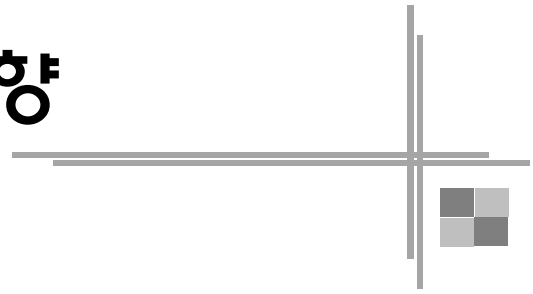


FTA 협상 동향



목 차

1	FTA 협상 개요	2
2	한·터키 FTA 타결	4
3	한·콜롬비아 FTA	10
4	한·호주 FTA	12
5	한·중 FTA 추진 대비	14
6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20
7	한·베트남/인도네시아 FTA	22
8	한·일 FTA	23
9	한·뉴질랜드 FTA	26
10	한·미 FTA 발효	27
	[참고 자료]	28

1 FTA 협상 개요

◇ 적극적인 FTA 추진으로 농림수산분야 시장개방 압력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상황

- 한·중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중국측의 강한 요구와 더불어, 국내산업계에서도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이유로 협상 개시 지속 요구
- 한·EU FTA('11.7.1), 한·미 FTA(2012.3.15) 발효에 따라 콜롬비아 등 협상 대상국들의 협상타결 및 개시 요구 강화

□ 정부는 경제영역 확대를 통한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적극 추진 중

○ 46개국과 9건의 FTA 발효 및 체결(전체무역: 34.5%, 농수산물: 45.7%)

* 발효 현황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15)/ 터키('12.3.26, 타결 선언)

○ 미국과 FTA 발효 후 이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속조치 추진 중

* 미국 : 타결('07.4). 정식서명('07.6),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11.11)

○ 최근 터키와 상품분야 협정이 타결, 향후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 예정

* 상품분야 발효 1년 이내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추진



□ 콜롬비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6건의 FTA 협상 중

- 콜롬비아는 양측 관심품목을 좁히면서 마무리 협상 가속화
- '08년 중단 되었던 한·캐나다 FTA는 쇠고기 WTO분쟁 해결에 따라 협상 재개 가능성
- 호주는 ISD 포함여부 및 쇠고기·낙농품에 대한 입장차로 교착상태, 뉴질랜드는 양허개선에 대한 입장차가 커 추진이 중단된 상황



□ 중국, 한중일,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12건의 FTA 협상 여건조성 중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 협상개시 위한 국내절차 진행
-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1.12), 연구결과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보고 예정('12.5, 북경)
- 일본과는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 한·아세안 FTA에 이어 추가로 하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FTA는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등을 추진 중



2

한·터키 FTA 타결

가. 협상 경과

<한·터키 농수산물 교역현황('11)>

- ◇ '11년 대 터키 농수산물 수입은 5,372만불, 수출은 1,537(3,835만불 적자)
 - 주요 수입품목 : 잎담배(797만불), 참치(768), 밀가루(451), 헤이즐넛(263) 등
 - 주요 수출품목 : 인스턴트 커피(617만불), 혼합조제식료품(222), 잎담배(190) 등

□ '10.3월, 터키의 성장잠재력, 지정학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한·터키 FTA 개시 선언 후 4차례 협상 진행

※ 민간공동연구('08.9~'09.5), 사전 준비회의('10.1월, 서울), 제1차('10.4월, 앙카라), 제2차('10.7월, 서울), 제3차('11.3월, 앙카라), 제4차('12.3월, 서울)

* 터키: 인구 7,500만명, 연평균성장 7%대, 유럽·아시아·중동시장 교두보

○ '11.3월, 3차협상까지 터키측 무역역조현상 개선을 위한 농수산 분야 과도한 양허 요구 등으로 협상 교착

- '12.1월 이후, 양국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
 - 터키측은 농수산물 관심품목을 945개에서 137개로 축소

□ '12.3.7~10일 제4차 공식협상에서 최종 타결

- 우리측은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를 확보하고, 양허품목에 대해서도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 등 확보
- 수출 및 잠재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철폐 등 터키측 양허 확보

□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 서비스·투자협정은 발효후 1년내 협상을 타결키로 합의

나. 농수산물 협상결과

□ 주요 민감품목이 대부분 양허제외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 낮은 수준으로 체결되어 농수산분야에 영향이 거의 없었던 한-인도, 한-싱가포르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타결

* 양허제외 수준 : 한-터키(795개 품목, 40.7%), 한-인도(730, 39.3), 한-싱가포르(662, 35.6)

<우리측 양허내용>

□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40.7%), 관세부분감축 확보(6.9%), 관세철폐 기간 장기화(31.2%)

○ (농산물) 쌀,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등 704개 민감품목은 양허제외

- 총 1,509개 품목 중 71.8%에 해당되는 1,083개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장기화

○ (수산물) 대체성이 강하고 민감품목인 명태(냉동), 민어(냉동) 등 91개 품목은 양허제외

- 총 445개 품목 중 72.1%에 해당되는 321개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장기화

<터키측 양허내용>

□ (농산물) 대터키 주요 수출품목인 인스턴트 커피, 담배 등에 해당하는 432개 품목 즉시철폐

○ 대터키 수출잠재력이 있는 품목에 대한 단기 양허 확보

- 라면, 소주, 김치에 대해 즉시 철폐/ 인삼, 선인장은 5년 철폐

* 현행관세 : 인스턴트커피(9.1), 담배(16.6), 라면(6.4 + 40.27 EUR/100kg), 소주(0~70), 김치(39) → FTA 발효 후 관세 0%

□ (수산물) 품목수 기준 86%, 교역액 기준 100%, 10년내 관세철폐

○ 청어, 한천 등 주요 수출 품목 5년내 관세철폐

다. 농수산물분야 협정문 주요내용

<농산물 세이프가드>

- 대부분의 민감품목이 양허제외되었고, 양측 양허수준이 매우 낮아 상호 미설정기로 합의

* 쇠고기, 돼지고기, 양념채소 등 기체결 FTA ASG 설정 품목 모두 양허제외 확보

<위생 및 검역>

- 현행 검역·검사제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WTO SPS 협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타결

<원산지>

- 신선 농산물은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우회수입 방지
 - 화훼, 과채, 곡물류는 당사국에서 재배·수확된 경우, 육류는 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경우에만 인정

* 제3국산 생축을 수입해 도축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불인정

- 설탕과자, 코코아 조제품 등 가공 농산물 수출가능성을 고려, 제3국산 재료 사용시에도 특혜관세를 적용토록 기준 완화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GI)는 상대국 GI에 대해 WTO/TRIPs*에 따른 보호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자국의 법·규정에 따라 보호기로 합의
 - 부속서에 양국 각 2개씩 등재기로 하고 터키는 카펫, 우리측은 고려홍삼, 고려백삼 등재

*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특허·의장·상표·저작권 등 지재권에 대한 다자 규범

라. 영향 분석

- 한·터키간 농수산물 교역이 적고, 주요 민감품목이 양허제외 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

* '11년 대세계 수입액(332억불) 대비 대터키 수입액(0.5) 비중 : 0.2%

-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명태, 민어, 오징어, 넙치 등 우리측 주요 민감품목 대부분 양허 제외

* 우리나라 신선 농수산물 생산액 중 양허제외 품목의 생산액 비중 : 100%

마. 보완대책

- 대터키 농축수산물 교역 비중이 작고, 대부분 주요품목이 양허 제외 되어 한·터키 FTA로 인해 추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

- 최종 협상결과에 대한 영향분석을 통해 피해 품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체결 FTA 보완대책을 활용하여 경쟁력 강화 등을 지속 추진

바. 향후 계획

- 정식서명,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 이행 및 대응 철저

- 협정문·양허안 검증 및 법률검토 시 농어업분야 협상결과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문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협정문 한글본 번역작업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상반기 중 정식서명 추진

- 커피, 라면, 담배, 소주, 인삼 등 수출 잠재 품목에 대해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 홍보도 적극 추진

참고

한 · 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비중,%)	주요 품목	품목수 (비중,%)
즉시 철폐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첩, 조제식료품, 타임 및 월계수잎, 올리브유 및그분획물, 밀(사료용)	194 (9.9)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랑어	479 (18.4)
5년 철폐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랑어	201 (10.3)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62 (2.4)
7년 철폐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21 (1.1)	틀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34 (1.3)
10년	잎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609 (31.2)	잎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801 (30.7)
관세감축	보조사료, 플레이크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갑오징어	134 (6.9)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175 (6.7)
양허제외	쌀,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포도, 오징어, 고추, 꿀, 넙치, 닭고기, 마늘 등	795 (40.7)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닭고기, 유장, 치즈, 버	1,060 (40.6)
합계		1,954 (100)		2,612 (100)

* 품목수는 HS 2010 기준임

참고

대터키 수출 관련 단기 양허 확보 품목

품목		터키 관세 ('10)	양허 결과	대터키 수출액 ('07-'09 평균, 천불)
담배(완성품)		16.6	즉시 철폐	528
김치		39	즉시 철폐	-
라면 및 기타면류	파스타 기타/건조	6.4 + 40.27 EUR/100kg/net (종가세+종량세)	즉시 철폐	159
	파스타 기타/조제 하지 않음	7.7 + 11.37 EUR/100kg/net (종가세+종량세)	즉시 철폐	30
	파스타 기타/조제 하지 않음(일반 밀가 루 미포함)	7.7 + 10.67 EUR/100kg/net	즉시 철폐	-
	기타 파스타/기타 (건조 이외)	6.4 + 39.01 EUR/100kg/net	즉시 철폐	-
소주		0~70	즉시 철폐	-
인스턴트 커피		9	즉시 철폐	3,858
인삼류		35	5년 철폐	-

※ 한-콜 최근('11) 교역 동향

- 한국과 콜롬비아의 교역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평가
 - 수입품목 : (우리나라)원유, 철, 커피 등 원자재
(콜롬비아)자동차, 타이어, 석유화학 제품 등
- 콜롬비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흑자폭 증가 추세
 -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 ('09) 672백만불 → ('10) 957 → ('11) 1,234
- 양국간 농수산물 분야의 교역액은 123백만불 규모('11)
 - 주요 수입품목('11) : 커피(108,796천불), 다알리아 등 절화류(1,665),
바나나 등 과실류(929)

가. 추진 현황

- '09.12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협상 타결을 위해
최근 양측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음

* 민간공동연구('09.3~8), 공청회('09.10), 1차 협상('09. 12, 서울), 2차 협상('10.3, 보고타), 3차 협상('10. 6, 서울), 4차 협상('10. 10, 칼리), 5차 협상('11. 10, 서울)

-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시('11.9.14~16) 양국 정상간 한·콜롬비아
FTA 타결 노력에 합의

- 한-콜 FTA는 금년 상반기중 타결 및 가서명을 목표로 추진 중

나. 분야별 논의동향

- (상품양허) 제5차 협상(11.10)에서 양측은 관심 품목을 교환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통해 협상대상 품목을 좁혀가고 있는 상황
 - 콜측은 쇠고기, 낙농품, 닭고기, 과일류, 화훼, 커피, 설탕, 주스류 등에 대해 개방 확대 요구
 - 우리측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타이어, 플라스틱, 철강제품, 섬유, 의류 등에 대해 콜-미/콜-EU parity 수준을 요구
- ⇒ 우리측은 쇠고기, 낙농품 등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서, 콜측은 자동차 등에 대해서 보수적 양허 입장 유지
- (협정문) FTA 협정문은 분야별 문안에 상당수 합의하고 일부 분야에서 소수쟁점만 남은 상황
 - (농업 협정문) 수출보조금, ASG 등 주요 농업 이슈에 대해서 양측간 입장차 존재
 - (SPS, 원산지관련) SPS는 지역화, 위험평가 등 민감 쟁점에 관해 양측이 문안 협상 중
 - 품목별 원산지기준은 어류, 가공식품 등 일부 품목이 잔여쟁점

다. 향후 계획

- 콜측 관심품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양허협상에 대응하되, 최종 협상 타결 가능성에도 대비
- 쇠고기 등 축산물에 대해서는 타결단계까지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되, 양국간 이익균형 등 전체 협상여건도 고려

가. 추진 현황

- '09.3월초 협상개시 선언 이후 '11.10월까지 5차례 공식협상 및 수차례의 소규모 회의 개최
- '11.11월 양국정상은 협상타결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단계임을 공감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
 - 호주측은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자국 축산물의 한국 시장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조속한 타결 희망
- 현재, 일부 쇠고기·낙농품/쇠고기 양허수준 및 ISD(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 포함 여부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있는 상황
 - 호주 관심품목이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에 집중
 - * 쇠고기, 낙농품은 대호주 총 수입액('07~'09년 평균 153억불)중 4.8%(7.4억불)에 불과하나, 광물자원 수입 제외시 최대 수입 품목
 - * 특히, 한-미 FTA 비준 동의 과정에서 ISD 포함 여부 문제가 돌출되어 새로운 핵심 쟁점으로 부상

나. 주요품목 대응 및 향후 추진계획

- (쇠고기) 호주측은 최소한 한미 FTA 수준(15년+농산물세이프가드)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중
 - 우리는 협상 이익균형, 국내 한우농가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중
 - 특히, 미국·EU와 교역구조 차이, 호주 쇠고기의 경쟁력 등 고려시 한·미 FTA와 차별화가 필요함을 적극 설명
 - * 통상정책관 호주 방문('11.8.11~8.12), 호주대사 및 호주장관 면담(8.25/12.13) 등을 통해 우리 입장 설명

※ 쇠고기 수급 동향

- (수급 전망) 사육두수 과잉 및 암소 출하 장려로 '12년 생산량은 전년대비 19% 증가 예상
 - * 사육두수 : (평년) 2,662천두 → (전년) 2,950 → ('12.전망) 2,840
 - * 생산량 : (평년) 186천톤 → (전년) 216 → ('12.전망) 258
- '12.2월(누적) 쇠고기 소비량은 85천톤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
 - * '12.2월(누적) 국내산 소비량은 44천톤(전년대비 41.9% 증가), 수입산은 41천톤(5.1% 증)
 - '12.2월(누적) 호주산은 18천톤으로 전년대비 2.7% 감소 (전체 수입산의 43% 점유, 전년동월 47%)

□ (낙농품) 호주측은 탈·전지분유, 치즈, 버터 등의 낙농품에 대해 현재의 수입시장 점유율에 준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요구

- * 호주산 낙농품의 우리나라 수입시장 점유율('07~'09년 평균) : 탈·전지분유(69.3%, 5,603톤), 조제분유(45.4%, 948톤), 치즈(15.6%, 7,669톤), 버터(6.8%, 137톤)

- 우리는 호주의 높은 가격 경쟁력, 우리 낙농업의 어려운 여건, 기체결 FTA에서의 TRQ 물량 등을 감안, 호주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응중

※ 우유 수급 동향

- '11년 생산량은 구제역 영향으로 전년대비 8.9% 감소한 1,889천톤이며, 원유가격 인상 이후 생산량 회복 추세이나, 소비량은 감소 추세
 - * '12년 3월 현재 1,430톤/일으로 전년동기 1,406톤/일 대비 1.7% 증가 (낙농진흥회)
- 국내 생산량 감소추세의 영향으로 전년 수입량 급증
 - * 전세계 유제품 수입액 : ('10) 682백만불 → ('11) 1,119(전년비 64% 증)
 - 호주산 유제품 수입액 : ('10) 107백만불 → ('11) 142(전년비 36% 증)

□ 축산업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호주 FTA 추진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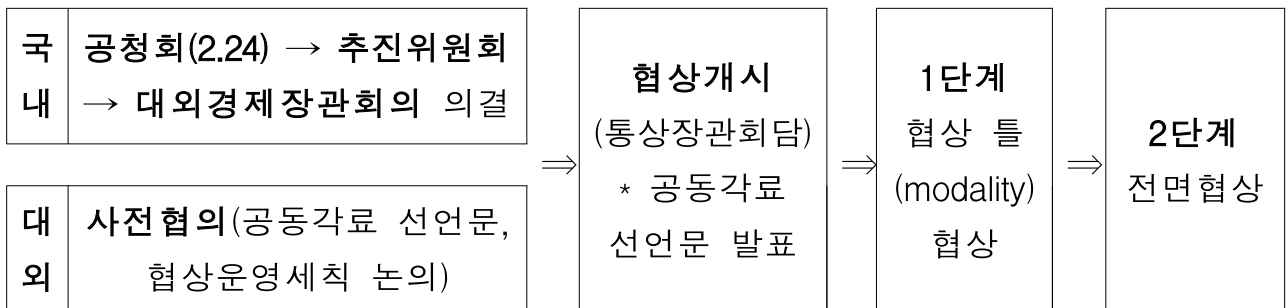
5

한·중 FTA 추진 대비

가. 추진 경과

- 한·중FTA 민간('05.3~'06.11) 및 산관학 공동연구('07.3~'10.5)
 - 한·중FTA 협상방식 및 민감성 처리방안 등을 조율하기 위해 외교부 주관으로 정부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10.9~)
- 한·중 정상회담('11.5)시 한·중 FTA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하기로 결론
- 한·중 정상회담('12.1.9) 계기에 양국은 한·중FTA의 조기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식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추진키로 함
 - * 국내절차(FTA체결절차규정, 대통령훈령) : 관보게재(2.9) → 공청회(2.24)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 아울러,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장치가 마련되기를 희망
- 외교통상부는 한·중 FTA 추진을 위한 절차로 공청회 개최(2.24일)
 - 국내절차와 병행하여 한·중 양국간 사전 실무협의 진행 중 (3.1.~2. 서울, 3.22.~23. 북경)

<한·중 FTA 추진 절차>



나. 중국의 특수성 및 국내농어업 여건

- (농업 교역상) 중국은 농어업대국이면서 우리 농어업과 생산 체계가 유사하고 가격경쟁력이 높아 여러 품목에 걸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EU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렌지 등 소수품목에 영향이 집중

- 농수산물 교역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대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중국 수입 증가로 우리측 무역적자는 계속 증가 추세

< 대 중국 농수산물 교역동향 >

구 분 (백만불)	2008	2009	2010	2011
수 출 (A)	539	565	787	1,380
수 입 (B)	3,627	3,676	4,323	5,250
무역수지(A-B)	-3,088	-3,111	-3,536	-3,870

- 농산물 수입의 14%(40.0억불)가 중국산이며, 양념채소 등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피해 발생 전망

- 고추, 마늘은 고관세로 상당량 수입, 국산의 1/10~1/3 가격 수준

* 연평균 수입('06~'10년) 고추 9,067만불, 마늘 4,184만불

- 과일류·육류는 수입이 미미하나 검역제한이 해제될 경우 수입 증가 우려

< 한·중 농축산물 도매가격 비교 ('10~11년 평균) >

분 류	품 목	도매가격(원/kg)		가격차 (배)	우리나라 양허관세(%)
		중국	국산		
식량작물	쌀	704	1,771	2.5	-
	대두	834	5,546	6.7	487
	녹두	2,037	9,761	4.8	607.5
과실류	사과	1,013	3,682	3.6	45
	배	463	2,329	5.0	45
	감귤	709	1,315	1.9	144
채소류	건고추	3,849	15,205	4.0	270
	마늘	1,402	5,193	3.7	360
	참깨	2,437	17,136	7.0	630
	상추	433	3,733	8.6	45
축산물	돼지고기	3,093	5,299	1.7	25
	닭고기	2,032	3,319	1.6	18

※ 출처 : 한·중 FTA 공청회 발표자료('12.2월)

- 수산물 수입의 30%(12.5억불)가 중국산이며, 어장이 접하여 다양한 어종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활어시장도 피해 우려

< 대중국 농수산물 수입 비중 ('11년) >

구 분		전 체 (백만불)	중 국 (백만불)	비 중 (%)
수입액	합 계	33,184	5,250	15.8
	농축산물	28,994	4,000	13.8
	수산물	4,190	1,250	29.8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 (사회주의국가 특성)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자유시장경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은 토지국유제 실시로 토지비용이 생산비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노력비가 저렴
- 국가통계가 다소 폐쇄적이고 신뢰도가 낮다는 평가도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고 중앙·지방정부(省)간 정책·제도 차이로 인한 비관세장벽 존재

- (기회요인) 중국은 고소득층이 많고 현재 대중국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중국은 농산물 순수입국이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농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중국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고부가가치 농산물 및 안전한 수입 식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우리 농식품에 대한 수출 기회가 증가할 전망

* 대중국 농식품 수출액 : ('05) 3.4억불 → ('09) 5.7 → ('10) 7.9 → ('11) 13.8

다. 향후 추진 계획

- 협상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 강구
 -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한·중 양국이 협상구조 등에 대해 사전 실무협의 중
 - 협상 원칙, 단계, 분야 등 협상운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토록 노력
 - 협상이 개시될 경우 (1단계)로 농어업 분야 민감성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양허제외, 예외적 취급 등 민감성 보호방안을 우선적으로 합의 도출토록 추진
 - (2단계)에서 민감성 보호방안을 기초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협상 진행
 - 농어업 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준비 하되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함께 도모
- 농어업계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소통 노력 강화
 - '11.12월부터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대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전문가 회의*, 토론회, 포럼 등 개최
 - 생산·유통·가공·수출입 업체, 농어업단체, 학계·연구계 등 참석
 - * 고추('11.12.14), 마늘·양파('12.1.17), 꽃게(2.17), 곡류(3.23) 등 16회 개최(3월말 기준)
 -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한 간담회, 설명회 등 개최

□ 한중FTA 대비 『품목별 전문가 회의』 개최

-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 학계, 업계대표 등을 초청, 한중FT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품목별 이해도 제고 및 협상전략 방안모색
- 일 정 : '11.12~'12.6 기간중 품목별 35회 개최
- 참석자 : 생산자, 유통·가공·수출입 업체, 학계 및 농식품부 담당자
- 고추('11.12.14), 마늘·양파('12.1.17), 사과·배(2.14), 꽃게(2.17), 감귤(2.20), 뱀장어(2.29), 바지락·낙지(3.9), 곡류(3.23), 내수면(3.29) 등 16회 기개최
* 수산업의 업종별(양식·연근해·원양·내수면) 전문가 회의 등 포함

□ 여론을 주도하는 학계, 연구기관 『농어업통상 전문가 포럼』 운영

- 농업통상전문가를 대상으로 포럼 구성·운영, 기고 등 유도
* '12년(1~3월) 2회 / '11년 5회 개최 / '10년 6회

□ 『한중FTA 농수산분야 토론회』 개최(2.29일)

- 한중FTA 협상 추진과 관련하여 농수산분야 주요 쟁점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장소 : KREI 대회의실)
- 주 최 : 농촌경제연구원(KREI) 및 해양수산개발원(KMI)
- 참석자(약 60명) : 농식품부, 대학교, 연구원, 농어업단체, 언론인 등

□ 『설명회』, 『지역포럼』, 『농어업인단체 간담회』 개최

- 농수산분야 유관기관, 농어업인 단체, 지역별 유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 추진
* '12년(1~3월) 설명회 2회 / '11년 설명회 4회, 지역포럼 9회, 농어업인단체 간담회 1회

□ 기타 국회, 생산자단체, 학계 등 설명·간담회 등

- 국회 수석전문위원(1.18), 국회의원(1.20), 농협 통상위원회(2.23), 농수축산신문 조찬 간담회(2.28), 국회 상임위 행정실(3.7), 대구경북연구원 토론회(3.8) 등

1. 총론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배경과 연구방향 기술
2. 한·중 교역 및 경제 관계 : 양국의 GDP, 교역액 등 거시경제 현황 및 관세수준과 FTA 체결현황 등 통상정책을 개괄적으로 비교
3. 상품 교역

(제조업) 대부분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 예상
중국의 수출경쟁력 확대에 의한 한국측 수입증가 여지도 상당

(농림수산업) 교역은 증대하되 비대칭적 영향 발생, 민감 부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해결 필요

 - * (농산) 한국은 채소, 과일, 특용 작물, 식용 작물, 축산물 등 생산 감소
 - * (수산) 중국은 활어, 냉동 생선슬라이스 등 노동 집약적 수산물의 수출 증가
4. 서비스 : 서비스 자유화는 제조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 혜택 기대
5. 투자 : 상품·서비스·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FTA는 양국간 투자 증대의 이상적 방안으로 평가
6. 기타 이슈(정부조달, 지적권, 경쟁, SPS, TBT, 분쟁해결, 경제협력)
 - 인적교류, 정보교환, 위원회 설치 등 협력 증진방안 논의 필요
 - (SPS) 양국은 모두 WTO 회원국으로서 WTO/SPS 권리·의무에 합치되게 SPS 조치를 적용하고 상호 협력
7. 결론 및 권고
 - 5개 원칙에 대한 공통 이해 도출 : ① 포괄성, ② 실질적 자유화, ③ WTO 규범과의 합치성, ④ 민감부문 고려, ⑤ 지속가능한 개발
 - 한중FTA 체결시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 과정에서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이를 위해 협상 출범 결정 전에 정부간 사전협의를 개최하여 민감성 처리 방안에 대한 상호이해·합의 도출 도모

가. 추진 현황

- '02.1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합의로 '03년부터 7년간 3국 민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실시
- '09.10.1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민간연구진의 건의에 따라 그간 진행되어 온 한중일 FTA 민간공동연구를 종료하고,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 '10.5월 서울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1.12월 제7차 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공식 종료
 - '10년도에 총 3차례 회의를 개최, FTA 이슈별 3국 기본입장 설명·논의
 - '11년도에 총 4차례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보고서 작성 작업 진행 및 종료
 - '11.5월 3국 정상회의에서 공동연구 종료 목표시점을 '11년 말까지로 앞당김에 따라, 이 후 보고서 작성 작업 가속화
 - * 회의 : (1차) '10.5월 서울, (2차) '10.9월 동경, (3차) '10.12월 웨이하이, (4차) '11.3월 제주, (5차) '11.6월 기타큐슈, (6차) '11.9월 창춘, (7차) '11.12월 평창
- 산관학 공동연구가 마무리되어 '12년에 각 국별로 협상개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

※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결론

- ①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②WTO 규범과의 합치성, ③이익의 균형 및, ④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한·중·일 FTA 협상에서 고려해야할 네 가지 원칙을 제안
- 보고서는 3국간 FTA가 실현 가능하며,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 3국 정부가 한·중·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지를 결정하고 향후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권고
- 3국은 공동연구 결과를 3국 경제통상 장관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거쳐 '12년에 개최되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
 - * 보고서 전문은 최종적으로 3국의 문안 검토작업(scrubbing)을 거쳐 '12년 3국 정상회의 개최 전에 공개될 예정

나. 향후 추진계획

- 한중일 정상회담('12.5월)에서 '공동연구 보고서'를 보고 예정
 - 이에 앞서 3국 경제통상장관 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경유
 - * '12.4.6(북경), 한·중·일 실무급 회의 개최 예정
- 농수산분야는 중국이 비교 우위인 점을 감안, 체계적·전략적 대응으로 민감성 반영 노력
 - 일본에 대한 수출, 식품안전, 농수산분야 협력 등 공세적 측면도 균형 있게 접근

가. 추진 현황

- 한·아세안 FTA 체결 후 자유화 수준 제고, 교역확대, 對 아세안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베트남, 인니와 양자 FTA 추진
 - (베트남) 양국 정상방문('09.10월) 계기로 공동작업반 설치에 합의 후 6차 회의까지 개최하여 공동연구 완료('11.10)
 - 베트남 주석 방한('11.11) 계기로 양국 정상 공식 채택
 - (인니) 인니 대통령 특사단 방문시 양국 FTA 필요성 공감 후, 3차 회의까지 개최하여 공동연구 완료('11.10)
 - 양국 정상회의('11.11, 발리)시 공식 채택 및 국내절차 추진 합의
 - * 양국 공청회 개최 : 한국(11월), 인니(12월)
 - FTA 민간자문회의('12.2), FTA추진위원회('12.3), 대외경제장관 회의 의결('12.3) 등 국내절차 추진 완료
- (한·인니) 3월 28일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CEPA* 협상개시 선언 및 상반기중 협상 시작 예정, (한·베트남) 필요한 국내절차 추진을 거쳐 금년중 협상개시 선언 전망
 -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농산물) 양국은 주로 열대성농산물을 생산·수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국내농산물과 경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
 - (수산물) 양국은 수산물 강국으로 오징어, 멸치, 새우, 꽃게 등 우리나라의 다수 수산품목들에 영향을 미칠 전망

나. 향후 추진계획(대응방안)

- 민감한 농수산물의 경우 투자확대, 능력배양 지원 등을 활용하여 개방수준이 최소화 되도록 대응
 - 특히 수산분야 피해우려 민감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산협력 확대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협상전략 추진

가. 추진경과

- '03.10월 협상개시 선언 후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농수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입장차로 협상중단
 - * 협상중단 후 '08년 초까지 협상재개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냉각기 유지
- '08.4월 정상회담에서 협상재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 실시에 합의하고 6차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 '12.3월 현재 과장급 실무협의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 중(외교부)

나. 농수산 분야 주요 쟁점

-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 (우리측) 일본측의 공식적·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만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
 - (일본측) 개방수준이나 비관세장벽 개선 여부는 정식협상 개시 후 논의 가능하며, 우선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
- 일본 비관세장벽 개선
 - 수산물 수입 쿼터(IQ) : 김 등의 수입물량 제한 규제 철폐
 - 신선농산물 수출 시 적용되는 SPS 조치 완화
 - 돈육차액 관세제도 완화
 - * 수입가격이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준액과 수입가의 차액 전액을 관세로 부과

다.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쟁점에 대한 일측의 입장변화 여부, 기타 FTA(한중일 FTA 등) 및 TPP 동향을 감안하여 협상재개 여부 판단

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개요

- **의의** : 원칙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FTA
- **참여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협상을 체결한 후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현재 9개국이 협상 진행 중
 - ※ '11년 APEC 정상회의('11.11.12~13, 하와이)에서 일본이 TPP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등도 관심 표명
- **진행상황** : 시장접근, 원산지, 무역원활화 등 21개 분과로 나뉘어 세부협상이 진행 중이며 현재 9차 협상('11.10월)까지 진행
- **향후계획** : '12년까지 협상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나. TPP 관련 일본측 논의 동향

- **간 나오토 정부**
 - 간 총리, '11.6월을 목표로 TPP 참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발표
 - TPP 참여 등 대외 개방 정책 촉진을 위해 FTA와 국내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10.11.9일)
 - 그러나 지난 3월 지진 발생 후, 간 총리는 대지진 및 원전 사고 대응 집중을 위해 6월 참가 여부 결정 논의를 유보하겠다는 의사 표명

□ 노다 요시히코 정부

- 노다 총리 취임 후, TPP 참여를 포함하여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지속 표명
- 시장개방과 농림어업 재생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목표 하, 「농림어업 재생을 위한 기본방침 및 행동계획」* 결정(11.10.25일)
 - * 「포괄적 경제연계에 관한기본방침」에 따라 국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설치된 「식(食)과 농림어업의 재생추진본부」 결정
- 노다 총리, TPP 협상 참가를 위해 관계 국가와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 공식 표명(11.11.11일)

□ 평가 및 전망

- 일본이 TPP 협상에 참여할 경우 농수산분야 시장개방에 소극적이던 기존 입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TPP 참여 관련, 농림어업 및 의약단체, 정부 및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아 향후 진전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

다. TPP 관련 한국 입장

- 우리 정부는 아직 TPP 가입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검토나 입장 정립은 하지 않은 상황이나,
- 한국은 TPP 참가 9개국 모두와 FTA를 체결(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하였거나, 협상 진행 중(호주, 뉴질랜드)인바, TPP 참가로 인한 비용 대비 추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전망

가. 추진 현황

- '09.3월 초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시 한·뉴 FTA 개시 선언 후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

* 민간공동연구('07.2~'08.3), 1차 협상('09.6), 2차 협상('09.9), 3차 협상('09.12), 4차 협상('10.5)

- '10.5월(웰링턴) 제4차 협상에서는 기 교환한(430) 상품 리퀘스트에 대한 입장 교환 및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논의 진행

- 뉴측은 자국의 리퀘스트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는 표준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관심 품목을 반영한 수정안 교환 제안

- 우리측은 뉴측 리퀘스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한 논의나 양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대응

- 뉴측은 한-미, 한-EU FTA 발효 이후 양국 FTA 재개를 강하게 희망

- 우리측은 연이은 FTA 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우려로 FTA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

나. 향후 추진계획

- 뉴측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

- 우리측은 우선 국내사정이 호전되고, 뉴측의 과도한 요구 수준*의 완화 등 모멘텀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

* 즉시철폐하지 않은 일부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대해 모두 양허개선 요구

가. 한미 FTA 발효 추진 경과

□ 출범 선언('06.2.3), 협상 타결('07.4.2) 및 공식 서명('07.6.30)

□ 추가협상 타결('10.12.3), 추가협상 합의 문서 정식서명('11.2.10)

* 농업분야 주요내용 : 돼지고기 냉동목살의 관세폐지 기간 2년 연장

○ 추가 협상 결과에 근거하여 경제적 효과 재분석(KREI, KMI)

* 피해영향 : 15년 누적 12조 6,683억원(연평균 8,445억원) 생산 감소

□ 번역오류 문제로 기존 비준동의안 국회 철회('11.5.4)

□ 외통부는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을 함께 국회에 재 제출('11.6.3)

□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11.11.22)

□ 농어업분야 피해보완 대책 발표('12.1.2)

○ 피해보전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재정(24.1조원)·세제(1조원)·제도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 마련

□ 한미 FTA 공식 발효('12.3.15)

나. 향후 계획

□ 한미 FTA 이행 시, 농수산업 관련 위원회*를 통해 ASG 등 농수산물 민감성 보호장치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농업위원회(발효후 90일), SPS위원회(45일), 수산위원회(1년이내) 설치토록 규정

□ 또한, 한미 FTA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지원 및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

참고 1

FTA 추진 현황

'123.29.현재

구 분	상대국	추진 상황	농수산물 수입('11년)	
			수입액(백만불)	비중(%)
발효 및 타결	칠레	○'99.12. 협상개시→'04.4. 발효	835	2.5
	싱가포르 ^②	○'04. 1. 협상개시→'06.3. 발효	104	0.3
	EFTA	○'05. 1. 협상개시→'06.9. 발효	217	0.7
	아세안	○'05. 2. 협상개시→'07.6. 발효	4,456	13.4
	인도	○'06. 3. 협상개시→'10.1. 발효	476	1.4
	EU	○'07. 5. 협상개시→'11.7. 발효	2,772	8.4
	페루	○'09. 3. 협상개시→'11.8. 발효	131	0.4
	미국	○'06. 6. 협상개시→'12.3.15 발효	7,706	23.2
	터키	○'10. 4. 협상개시→'12.3.26 타결	54	0.2
	소 계	9건 46개국	16,751	50.5
협상 중	호주	○'09. 5. 협상개시, 12차례 협상	2,820	8.5
	콜롬비아	○'09.12. 협상개시, 10차례 협상	122	0.4
	GCC	○'08. 7 협상개시, 3차례 협상	24	0.1
	뉴질랜드	○'09. 6. 협상개시, 4차례 협상	1,061	3.2
	캐나다	○'05. 7. 협상개시, 13차례 협상	1,710	5.1
	멕시코	○'07.12. 협상개시, 2차례 협상	151	0.4
	소 계	6건 11개국	5,888	17.7
준비 또는 여건 조성	중국	○공동연구('05.~'10.5), 공청회(2.24), 사전 실무협의('10.9~)	5,250	15.8
	일본	○협상개시 및 중단('03.12.~'04.11(6차)), 협상재개 실무협의 7차례('08.6~'11.5)	640	1.9
	한·중·일	○공동연구('03.~'11.12), 정상회의에서 보고예정('12.5.)	5,890	17.7
	인도네시아 ^②	○공동연구 완료·채택('11.7~'11.11) 공청회(한국 '11.11, 인니 '11.12)	1,003	3.0
	베트남 ^②	○공동연구 완료('10.6~'11.10)	904	2.7
	MERCOSUR	○민간공동연구('05.5~'06.11)	2,244	6.8
	기타	○말레이시아 ^② , 러시아, 이스라엘, SACU, 몽골, 중미	2,443	7.4
	소 계	12건, 23개국	12,484	29.3
합 계	27건 77개국	32,251	97.2	
농수산물 전체			33,184	100.0

- ①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및 무역협회 (우리나라 전체상품 수입액 : 524,413백만불)
 ② 국가수 및 수입액(비중) 소계·합계는 중복 미포함(한중일 및 아세안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③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동남아 국가연합10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EU(유럽연합27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GCC(걸프협력이사회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5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중미(6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참고 2 FTA 대상국별 교역 규모('11)

(단위 : 백만불, %)

협상 경과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전체농수산물 대비(소계/농수산물수입)
발효 (8개)	칠 레	2,381.5	8.1(0.34)	4,858.0	835.2(17.18)	
	싱가폴*	20,839.0	97.6(0.47)	8,966.7	104.0(1.16)	(ASEAN)
	EFTA	1,817.8	8.2(0.45)	5,177.5	217.5(4.20)	
	ASEAN	71,801.4	1,031.8(1.44)	53,120.7	4,455.8(8.39)	
	인 도	12,654.1	24.8(0.20)	7,893.6	475.6(6.02)	
	E U	55,726.6	362.9(0.65)	47,423.7	2,771.9(5.85)	
	페 루	1,367.7	0.8(0.06)	1,950.5	131.4(6.71)	
	미 국	56,207.7	599.8(1.07)	44,569.0	7,706.2(17.29)	
	소 계	201,956.8	2,036.4(1.01)	164,993.0	16,593.6(10.06)	50.00
타결 (1개)	터 키	5,071.0	15.4(0.30)	804.6	53.7(6.67)	
	소 계	5,071.0	15.4(0.30)	804.6	53.7(6.67)	0.16
협상 진행 중 (6개)	호 주	8,163.8	93.3(1.14)	26,316.3	2,820.1(10.71)	
	콜롬비아	1,614.0	1.4(0.09)	380.0	121.9(32.07)	
	뉴질랜드	1,103.8	118.9(10.77)	1,474.1	1,061.3(71.98)	
	GCC	17,270.6	223.1(1.29)	95,459.8	24.4(0.03)	
	캐나다	4,927.7	62.6(1.27)	6,611.9	1,709.5(25.86)	
	멕시코	9,729.1	16.5(0.17)	2,315.7	151.3(6.48)	
	소 계	42,809.0	515.8(1.20)	132,557.8	5,888.5(4.44)	17.74
향후협상 대비 (11개) ※ 한중일 포함 12개	중 국	134,185.0	1,380.0(1.03)	86,432.2	5,249.7(6.07)	
	일 본	39,679.7	2,374.2(5.98)	68,320.1	640.3(0.94)	
	러시아	10,304.9	242.7(2.35)	10,852.2	914.0(8.42)	
	MERCOSUR	13,319.1	21.0(0.16)	7,518.4	2,244.0(29.86)	
	이스라엘	1,817.9	26.3(1.45)	683.5	16.1(2.36)	
	베트남*	13,464.9	275.4(2.03)	5,084.2	904.2(17.78)	(ASEAN)
	SACU	2,306.8	26.3(1.14)	3,150.5	337.0(10.70)	
	몽골	349.9	35.5(10.15)	60.6	0.7(1.16)	
	중미	4,848.8	8.6(0.18)	1,081.2	314.0(29.04)	
	말레이시아*	6,275.1	95.8(1.53)	10,467.8	861.0(8.23)	(ASEAN)
	인도네시아*	13,564.5	121.5(0.90)	17,216.4	1,003.2(5.83)	(ASEAN)
소 계	240,116.6	4,607.3(1.92)	210,867.1	12,484.2(5.92)	37.62(29.28)	
총 계		456,648.9	6,682.2	476,454.1	32,251.6	97.19

* 자료원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및 무역협회

* 주 : 비중은 국가별 상품수출입 실적에서 농림축수산물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 우리나라 농림축수산물 수출액 : 7,691.3백만불, 수입액 : 33,184.0백만불

* 우리나라 전체상품 수출액 : 555,213.7백만불, 전체상품 수입액 : 524,413.1백만불

참고 3

한·터키 FTA 교역현황

□ 대 터키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06	'07	'08	'09	'10	'11
수 출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수 입	194	282	362	434	516	805
무역수지	2,842	3,805	3,411	2,227	3,237	4,266
총교역액	3,230	4,369	4,135	3,095	4,269	5,876

□ 대 터키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06	'07	'08	'09	'10	'11
수 입 (A)	합 계	39,350	44,035	45,177	48,517	54,190	53,722
	- 농산물	25,069	27,250	26,849	34,879	36,579	32,757
	- 축산물	880	2,022	843	401	232	1,339
	- 임산물	3,929	4,307	4,004	3,951	5,073	4,397
	- 수산물	9,471	10,455	13,482	9,286	12,306	15,227
수 출 (B)	합 계	4,627	2,166	14,953	10,023	7,050	15,375
	- 농산물	1,366	1,707	12,946	8,961	5,572	12,206
	- 축산물	1,797	28	0	0	10	146
	- 임산물	632	230	1,428	546	1,240	2,314
	- 수산물	832	212	579	517	228	709
무역수지(B-A)		-34,723	-41,869	-30,224	-38,494	-47,140	-38,347

□ 대 터키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6,170	잎담배 7,970
2	혼합조제식료품 2,221	참치 7,686
3	잎담배 1,903	기타연체동물 7,077
4	섬유판 1,595	밀 4,509
5	청어 673	헤이즐넛 2,631
6	합판 526	오렌지 1,868
7	곡류조제품 233	해바라기씨유 1,802
8	홍삼조제품 228	올리브유 1,783
9	채소종자 216	초코렛 1,741
10	홍삼분 193	침엽수제재목 1,653

참고 4

한·콜롬비아 교역 현황

□ 대 콜롬비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1,121	1,091	797	1,389	1,614
수 입	116	143	125	432	380
무역수지	1,005	948	672	957	1,234

□ 대 콜롬비아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221	213	85	476	1,400
	농산물	111	106	64	474	1,254
	축산물	4	0	0	0	4
	임산물	43	91	0	1	0
	수산물	63	16	21	1	142
수입(B)	합 계	36,324	47,752	56,823	74,278	121,912
	농산물	34,321	47,037	55,234	72,479	119,705
	축산물	1,910	357	1,105	1,487	1,554
	임산물	4	4	0	24	14
	수산물	89	354	484	288	639
무역수지(A-B)	-36,103	-47,539	-56,738	-73,802	-120,512	

□ 대 콜롬비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기타음료 716	커피 108,796
2	혼합조제식료품 217	커피조제품 5,258
3	삼치 138	기타절화 1,665
4	백삼조제품 91	우황 1,553
5	물 66	사탕수수당 1,434
6	라면 34	초콜릿 689
7	기타사료용조제품 29	기타과실 557
8	감초엑기스 19	어류유지 466
9	선인장 17	팜유 373
10	기타과실 14	바나나 372

* 기타 과실류 :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

참고 5

한·호주 교역 현황

□ 대 호주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4,691	5,171	5,243	6,642	8,164
수 입	13,232	18,000	14,756	20,456	26,316
무역수지	-8,541	-12,829	-9,513	-13,814	-18,152

*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금은 및 백금

* 주요 수입 품목: 석탄, 철광석, 원유, 알루미늄, 천연가스, 쇠고기

□ 대 호주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73,800	78,531	86,723	82,027	93,285
	농산물	62,000	65,037	71,971	69,416	76,273
	축산물	5,900	6,178	5,819	4,022	3,582
	임산물	600	906	973	1,303	1,127
	수산물	5,300	6,410	7,960	7,286	12,303
수입(B)	합 계	1,694,500	1,920,879	1,703,116	2,212,697	2,820,096
	농산물	683,400	901,967	930,718	1,256,982	1,597,680
	축산물	897,100	825,462	608,960	789,413	1,056,487
	임산물	112,100	119,642	61,098	47,867	53,107
	수산물	1,900	73,808	102,340	118,435	112,822
무역수지(A-B)	-1,602,700	-1,842,348	-1,616,393	-2,130,670	-2,726,811	

□ 대 호주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11,280	쇠고기	849,273
2	라면	10,576	밀	634,159
3	비스킷	5,609	사탕수수당	481,088
4	곡류조제품	4,481	면	115,679
5	기타음료	3,734	소금	104,767
6	쌀	2,600	보리	95,294
7	기타베이커리	2,499	침엽수원목	43,056
8	김	2,376	사료용근채류	42,323
9	기타파스타	2,364	유채유	37,316
10	혼합조제식료품	2,267	기타축산조제품	33,789

참고 6

한·중 교역 현황

□ 대 중국 전체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81,895	91,389	86,703	116,838	134,185
수 입	63,028	76,930	54,246	71,574	86,432
무역수지	18,867	14,459	32,457	45,264	47,753

* 주요 수출품목 :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등

* 주요 수입품목 : 섬유·의류, 생활용품, 비금속광물제품 등

□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A)	합 계	452	539	565	787	1,380
	농산물	257	303	327	447	816
	축산물	7	14	18	23	37
	임산물	30	32	74	86	62
	수산물	158	190	146	231	465
수 입 (B)	합 계	4,173	3,627	3,676	4,323	5,250
	농산물	2,375	1,950	1,702	1,946	2,463
	축산물	100	85	42	53	60
	임산물	625	588	1,078	1,228	1,476
	수산물	1,073	1,004	854	1,096	1,250
무역수지 (A-B)		-3,721	-3,088	-3,111	-3,536	-3,870

□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혼합조제식료품	쌀
2	자 당	합 판
3	오징어	문 어
4	커피조제품	혼합조제식료품
5	대 구	전분박
6	어 란	고 추
7	홍 삼	조 기
8	대두유	김 치
9	삼 치	마 늘
10	명 태	기타채소

참고 7

한·일본 교역 현황

□ 대 일본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26,370	28,252	21,771	28,176	39,680
수 입	56,250	60,956	49,428	64,296	68,320
무역수지	-29,880	-32,704	-27,657	-36,120	-28,640

□ 대 일본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1,220	1,438	1,580	1,883	2,374
	농산물	561	669	794	967	1,308
	축산물	41	51	20	25	32
	임산물	44	33	32	31	40
	수산물	573	686	734	859	993
수입(B)	합 계	530	532	536	659	640
	농산물	201	250	301	344	397
	축산물	43	42	10	14	16
	임산물	11	15	30	75	59
	수산물	274	225	195	226	168
무역수지(A-B)		690	906	1,044	1,224	1,733

□ 대 일본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기타어류	199	혼합조제식료품	94
2	참치	177	펄프	38
3	혼합조제식료품	160	돔	29
4	기타곡물발효주	138	명태	29
5	소주	93	쇼트닝	26
6	김치	87	채소종자	20
7	기타설탕과자	80	고등어	19
8	파프리카	66	맥주	18
9	김	58	기타어류	18
10	라면	53	기타소오스제품	17

참고 8

한·베트남 교역현황

□ 대 베트남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5,760	7,805	7,149	9,652	13,465
수 입	1,392	2,037	2,370	3,331	5,084
무역수지	4,368	5,768	4,779	6,321	8,381

□ 대 베트남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49,756	75,036	109,796	153,146	275,420
	농산물	25,935	30,294	56,097	75,233	133,589
	축산물	10,654	21,308	22,893	31,431	34,742
	임산물	4,125	4,117	8,399	14,473	45,636
	수산물	9,042	19,318	22,407	32,009	61,453
수입(B)	합 계	410,188	553,048	512,789	623,501	904,204
	농산물	101,337	182,455	150,983	135,464	256,517
	축산물	516	1,170	526	329	1,240
	임산물	40,303	63,582	56,128	111,371	163,722
	수산물	268,032	305,841	305,151	376,338	482,725
무역수지(A-B)	-360,432	-478,012	-402,993	-470,355	-628,784	

□ 대 베트남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권련	43,821	문어	102,301
2	기타임산물	41,271	기타어류	94,075
3	혼합조제식료품	21,090	커피	86,695
4	닭고기	18,404	칩	82,112
5	참치	13,836	새우살	77,517
6	기타어류	13,582	새우	75,246
7	기타사료용조제품	8,430	쥐치포	44,155
8	기타 수산물분	7,601	오징어	40,468
9	조제분유	7,453	합판	30,826
10	오징어	6,883	기타연체동물	27,787

참고 9

한·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 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5,771	7,934	6,000	8,897	13,564
수 입	9,114	11,320	9,264	13,986	17,216
무역수지	-3,343	-3,386	-3,264	-5,089	-3,652

□ 대 인도네시아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70,498	88,079	68,835	93,963	121,514
	농산물	56,763	67,977	52,113	77,452	103,465
	축산물	1,403	2,333	362	360	820
	임산물	3,230	6,698	2,808	6,867	9,122
	수산물	9,012	11,071	13,551	9,284	8,107
수입(B)	합 계	467,987	613,222	660,771	880,369	1,003,167
	농산물	183,828	323,511	232,120	286,224	413,219
	축산물	902	579	494	467	452
	임산물	227,918	212,834	360,785	529,772	519,768
	수산물	55,339	76,298	67,372	63,906	69,728
무역수지(A-B)	-397,489	-525,143	-591,936	-786,406	-881,653	

□ 대 인도네시아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커피조제품 34,705	펄프 338,969
2	혼합조제식료품 19,455	야자유 102,832
3	기타사료용조제품 16,264	합판 86,925
4	기타임산물 6,226	팜넛유박 50,812
5	자당 5,198	혼합조제식료품 48,978
6	기타수산물분 4,299	야자, 코프라박 38,073
7	대두박 2,805	팜유 37,258
8	라면 2,335	밀기유 35,878
9	옥수수 2,130	성형목재 32,874
10	기타유지가공품 1,764	당밀 30,613

참고 10

한·미 FTA 교역현황

□ **대 미국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 출	45,766	46,377	37,650	49,816	56,208
수 입	37,219	38,365	29,039	40,403	44,569
무역수지	8,547	8,012	8,610	9,413	11,639

*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직접회로반도체, 석유제품 등

* 주요 수입 품목: 반도체제조용장비, 항공기(부품), 사료, 고철, 기타정밀화학제품 등

□ **대 미국 농림축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출(A)	합 계	401	449	467	519	600
	농산물	257	295	314	348	394
	축산물	38	32	15	16	14
	임산물	7	8	9	13	11
	수산물	99	114	129	142	181
수입(B)	합 계	3,698	6,401	4,590	5,960	7,706
	농산물	2,596	5,027	3,264	4,333	5,245
	축산물	686	889	702	927	1,686
	임산물	271	345	501	574	619
	수산물	145	140	123	126	155
무 역 수 지(A-B)	-3,297	-5,952	-4,123	-5,441	-7,105	

□ **대 미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1)**

(단위 : 백만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혼합조제식료품 58	옥수수 1,936
2	기타어류 44	쇠고기 653
3	김 39	돼지고기 510
4	기타음료 30	밀 507
5	권련 29	혼합조제식료품 437
6	배 24	면 402
7	굴 21	대두 326
8	라면 20	펄프 233
9	비스킷 20	사료용근채류 230
10	오징어 16	오렌지 178

참고 11

한미 FTA 농어업 추가 보완대책 ('12.1월 발표)

※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 마련

○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

□ **[재정지원]** 농어업 지원을 위해 최근('11.8월) 수립된 대책의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24.1조원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 밭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 **[세제지원]** '11.8월 대책의 0.2조원에 더하여 이번 대책으로 0.8조원을 추가(일몰연장분 제외)함으로써 총 1.0조원 세제지원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 영농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